

2010 풀 아카이브 프로젝트 #2  
A First Reader:  
만화가 고영일의

아카이브계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2010. 11. 11 - 12. 26  
전시 풀 지하 아카이브실  
연재 풀 홈페이지 [www.altpool.org](http://www.altpool.org)  
고영일 블로그 <http://blog.naver.com/rockartoon.do>

## 폴 아카이브

폴은 자체 기획 출판물 외에 인문학 도서, 자료집, 타기관 전시 도록, 아티스트 북, 월계간지 등 총 2천여 항목에 달하는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관훈미술관, 그림마당 민, 서울미술관, 이십일세기화랑, 한강미술관 등에서 기증된 출간 자료와 민족미술, 민족예술, 서울미술공동체, 우리 그림, 현실과 발언, 두령 등의 발행물, 1980-90년대의 주요 기획 전시 도록 등 80년대 미술 작업들과 시대 정신을 돌아볼 수 있는 250여 항목의 스페셜 아카이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폴 아카이브는 기존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카이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연 2차례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아카이브의 가치를 동시대 관점에서 재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 아카이브 프로젝트 #2

### A First Reader: 만화가 고영일의 “아카이브계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폴 아카이브는 창작과 수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작가의 상상력, 비평가의 실천, 관객의 응답이 모여 만들어진 폴 자체를 증거하는 대안적 실험의 자양분입니다. 폴은 이러한 인식 하에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오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아직도 낯선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ps와 이지아, 두 작가를 초대하여 비형식화된 상상력의 계보와 작가 고유의 생각과 발언이라는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조명해 본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순서로 집단과 개별주체, 기관과 작가 모두에게 자기 반영적 태도로써 기능할 가장 비판적이면서 친밀한 관계에 놓인 “첫 번째 독자(A first reader)”라는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다시 출현시키고자, 이 이야기의 드라마투르그로 만화가 고영일을 초대합니다.

고영일은 현실에 근거한 구체적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만화작업을 통해 ‘미시적 비판성’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군대만화, 군사문화비판만화로 회자되는 <푸른 끝에 서다>(새만화책, 2009)와 같은 작품 속에서 고영일이 반추하는 자신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혁명을 위해 싸워왔던 투사도, 조작된 사건이 난무했던 시대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말해줘요 “영일씨”>(저널 볼, 3호, 2006)라 붙인 제목처럼, 고영일의 만화는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휩쓸고 간 세계 변혁에 대한 전망이 사라진 이후 ‘운동’이라는 수식어를 어떻게 정리할 지 모르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한 30대 남자가 스스로를, 스스로의 삶에 어떤 이룸도 붙이지 않고 서술하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일씨는 아직도 자신이 소위 말해지는 ‘운동’을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혁명에 대해 의문하며, 스스로의 결정을 유보하는 무대는 지난 시절 혁명으로 선취하고자 했던 노동계급의 문화가 정의되지 않는 다수가 소비하는 대중문화로 치환된 세계입니다. 단일한 지배자의 논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 자본,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권력의 무제한적 독식으로 가능해진 다양성의 문화가 자리합니다. 제도와 자본이 영합한 시장담론이 주도하는 새로움과 창조성, 답습하는 제도가 되어버린 사회비판적 혹은 현실참여적 작업들의 진부함이 만들어내는 탈구된 시간 속에서 어떤 대안이 각각의 문화 생산자와 기관에게 유효할 수 있을까요? 고영일은 그가 표현한 대로 폴 아카이브에서 “잠들어 있던” 발화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멋진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 위에서 가끔씩 승차거부하는 택시에 분노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모던 락에 저항하는 헤비메틀을 연주하듯이 그려놓습니다.



작가가 “아카이브계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라는 자못 패셔너블한 제목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자들을 찾았던 방식은 아카이브가 대변하는 사회적, 미술사적 가치와는 별개의 아주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20대에 만났던 만화 선생님 장진영, 그리고 30대 초반 <새만화책>이라는 만화집단에서 스쳐 지나갔던 미술작가팀 믹스라이스가 바로 고영일이라는 히치 하이커가 황량한 실재의 고속도로에서 낚아올린 드라이버들, 즉 동인(動人)들이었습니다.

우연한 인연은 아카이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멋진 우회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믹스라이스와 장진영, 두령의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역사화라는 선부른 계승적 관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술의 도구적 효용성, 사회적 실천,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지점에서 서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은 공장과 농촌 등지에서 벌어졌던 집단 창작 현장활동, 만화/판화 공방활동, 출판미디어 운동 등 80년대 민중미술운동 소집단 두령의 실천과 문화운동으로서 세웠던 미래적 전망들, 그 전망 이면에 가려졌던 일련의 실패가 지시하는 미시사적 정치성에 대한 회고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믹스라이스는 제도화된 공공미술과 이주민이라는 타자담론 사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작가팀이라는 구성체 내에서, 각자가 가진 작가 혹은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지향점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우회하는 담화들은 다시 읽어내는 고영일의 이야기 속에서는 거대 담론에도 굴하지 않는 삶의 페이스, 자신의 삶을 외부로 꺼내어 놓는 고통을 수반하는 즐거움의 유머가 묻어납니다. 7,80년대 스스로 주체임을 자각했던 창작인들의 목소리를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이 지나친 역사화나 퇴행적 복고주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 피해자의 발언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강박을 넘어서 공동체에 어떤 유효한 전망되기 위해 무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유머가 가능한 공간을 형성하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80년대의 전후의 미술의 현재성을 논했던 한 대담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무수한 미술운동들을 구성한 개별적 작업들이 꿈꿔왔던 이른바 전망을 제시하는 작업이 일종의 아방가르드이며 아직도 아방가르드에 대한 담론이 유효하다 전제한다면, 풀 아카이브로부터 다시 귀환할 아방가르드는 무엇일까요? 그 아방가르디스트는 경계의 최전선에 선 선구자가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니면서 그 무엇인 겹침의 공간에서 걷는, 몽상하는, 충돌하며 파괴하는 방랑자일 것입니다. 이는 방랑을 즐길 줄 아는 이야기말로 전망에 갈급한 자가 아닌 향유하는 자, 자기반영적 태도의 가능성을 유효한 생산형식으로 전유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고영일의 신작만화 “아카이브계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는 이러한 담화들을 넘나드는 고영일의 상상력을 담아 풀 홈페이지와 작가 블로그 <http://blog.naver.com/rockartoon.do> 를 통해 pdf 출판물 및 재구성된 웹툰 형식으로 배급되며, 12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pdf 출판물에는 고영일과 풀이 만나거나 대담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풀 지하 아카이브 전시실에서는 작업을 원화와 소출판 만화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11월 마지막 주에는 만화 속 주인공들이 된 장진영, 믹스라이스, 고영일, 그리고 풀 아카이브가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 또한 마련됩니다. 풀과 고영일은 스승이요 동료인 또 다른 독자들과 그 출발선에 서서 공명해보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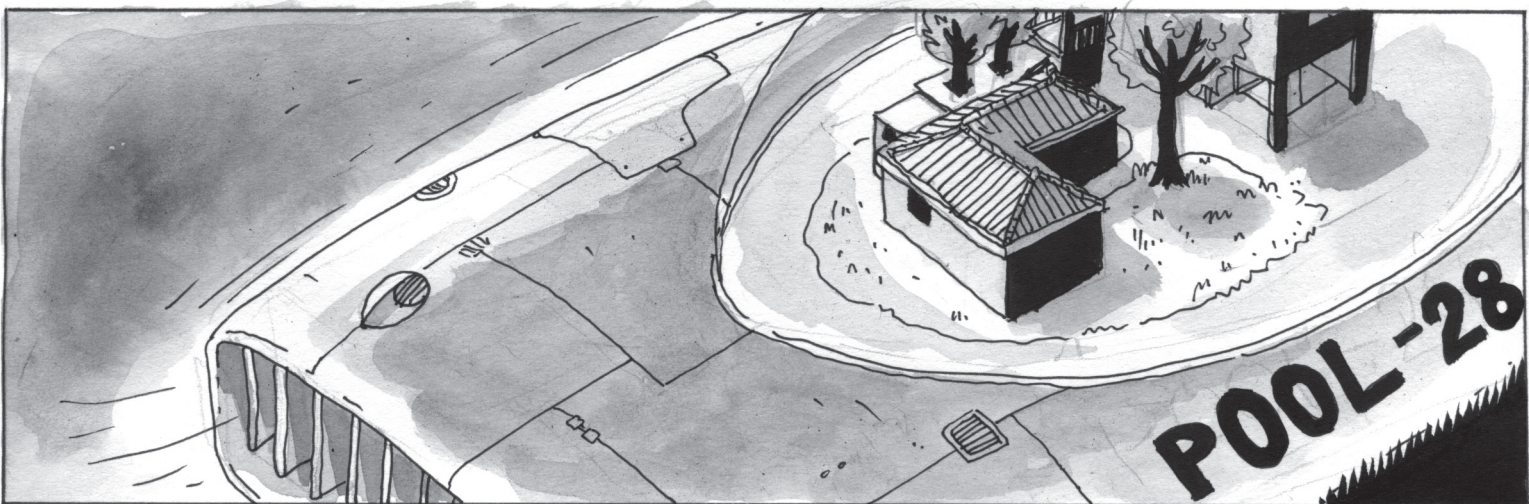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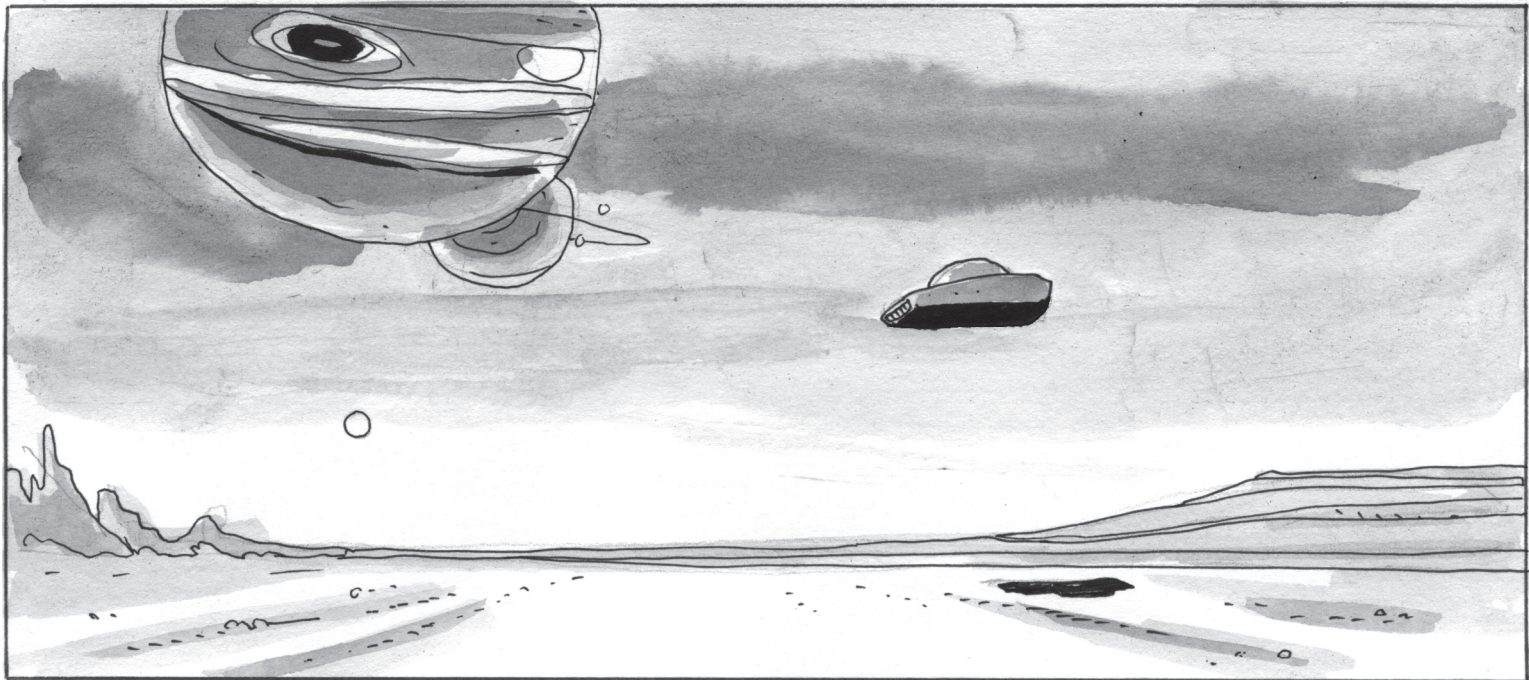
아트 스페이스 풀 큐레이터 김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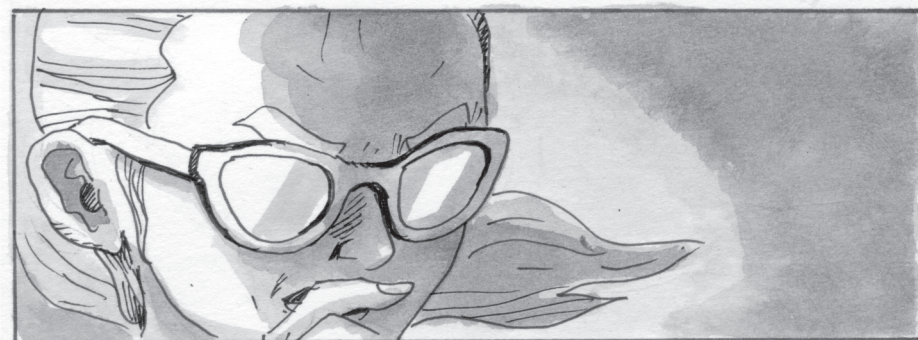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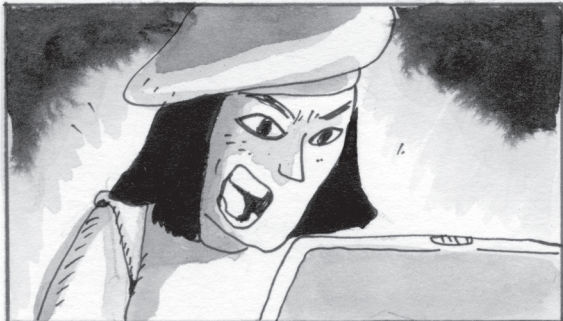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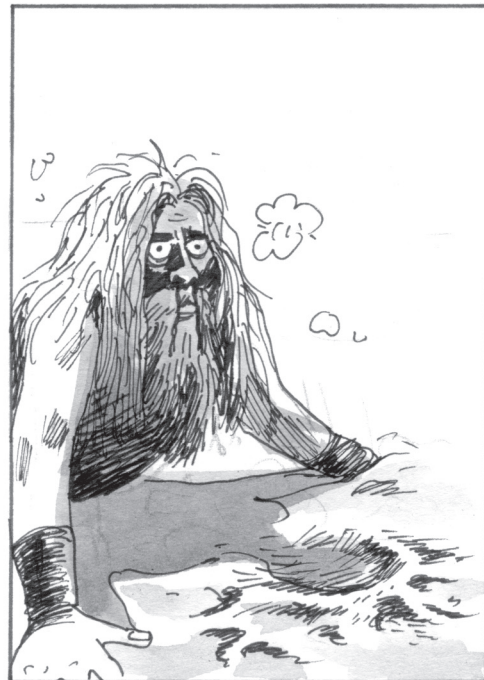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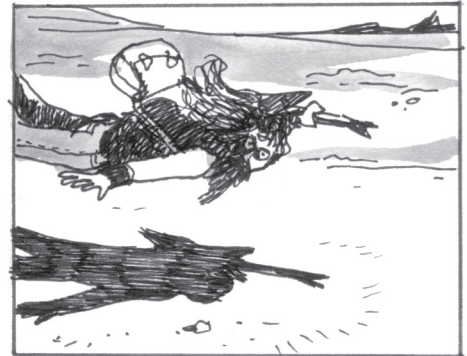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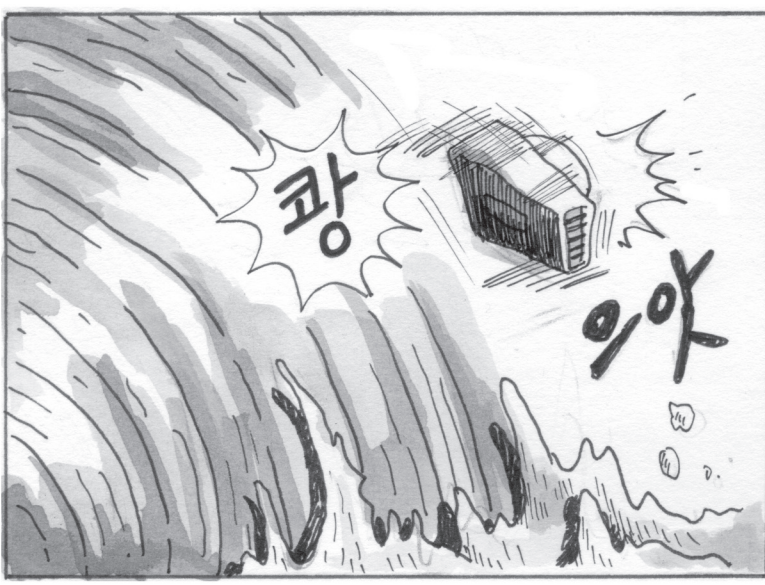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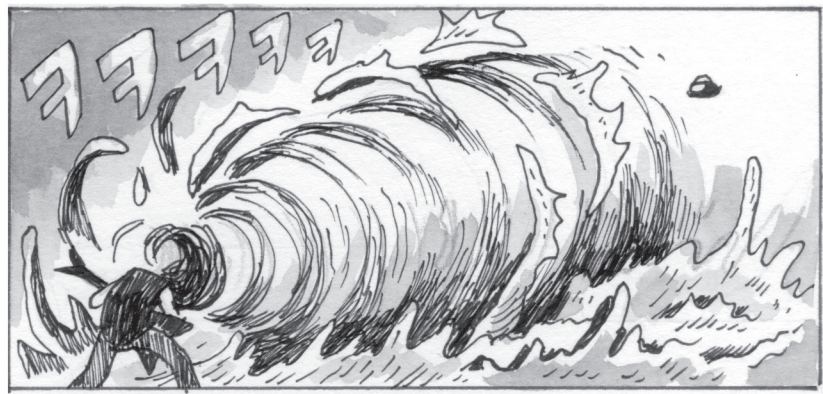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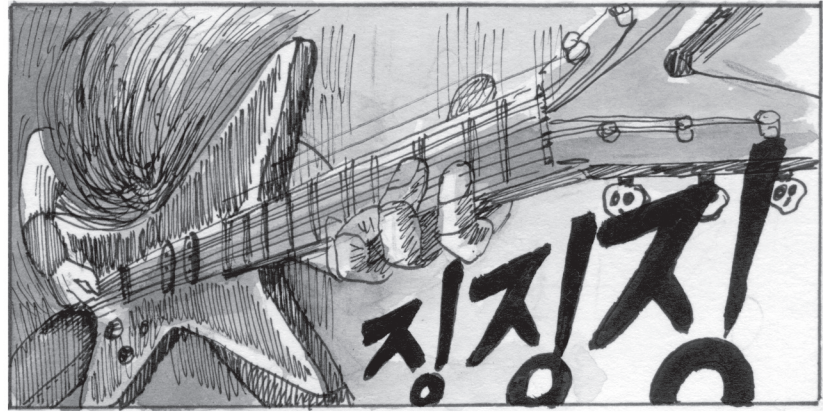
아카이브계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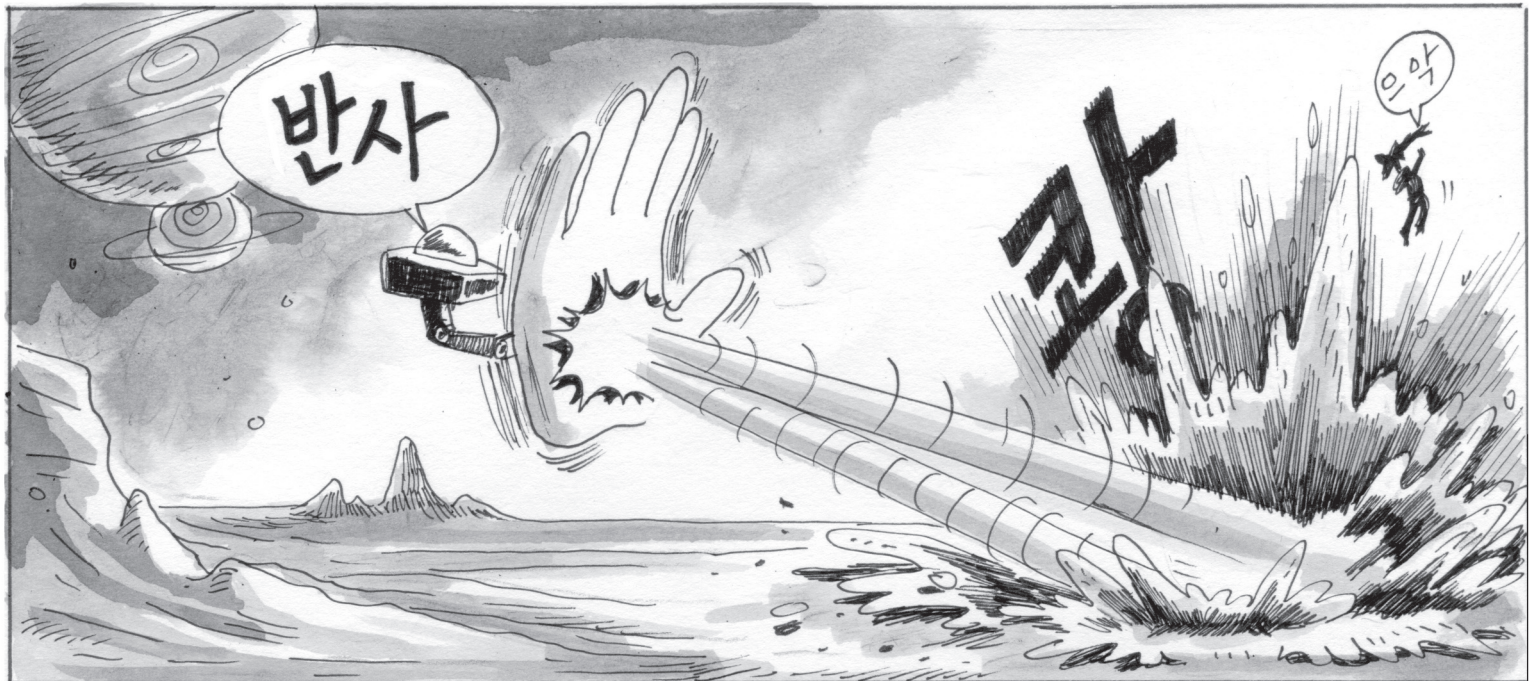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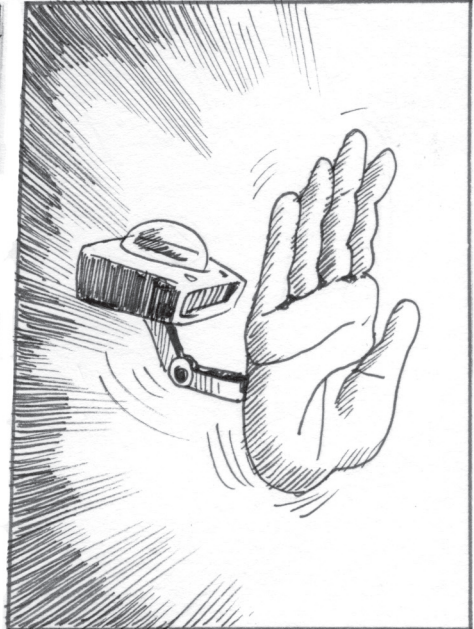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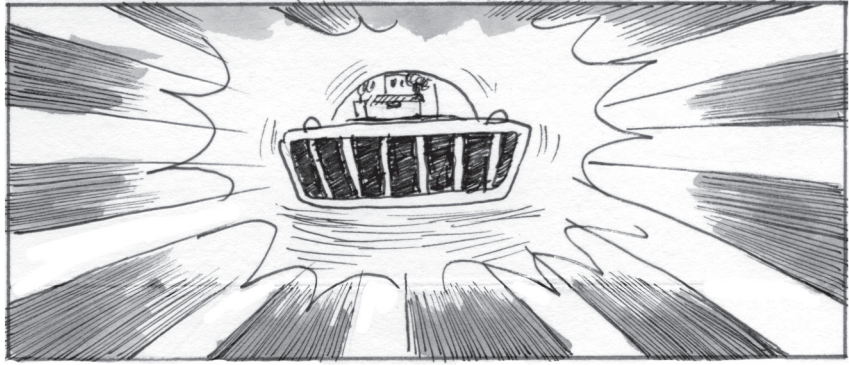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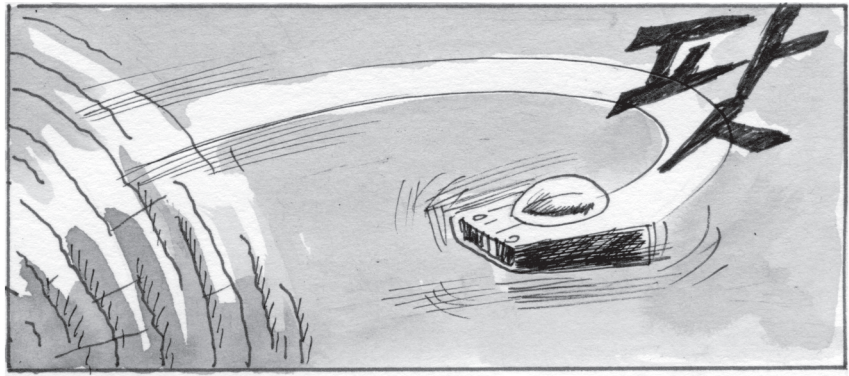
때는 서기 2500년,  
지구는 멸망하고 선택된  
지구인들은 폴-28호를 타고  
지구를 탈출한지 수 백 년이 흘렀다.  
그들은 최후의 희망,  
인간의 고향인  
아카이브계를 찾아  
정처 없이 우주를 떠돈다.  
오늘도 이름 모를 별을  
떠돌고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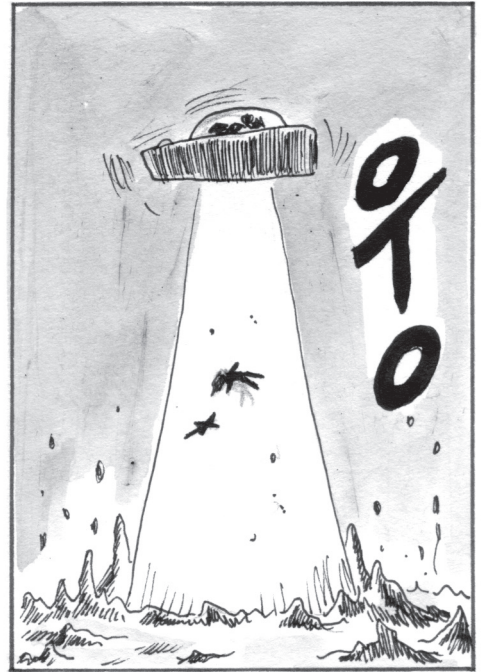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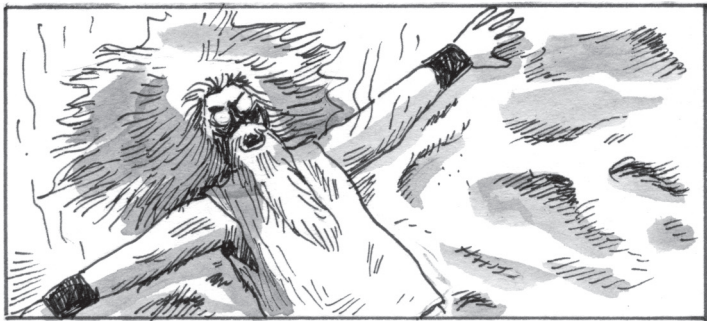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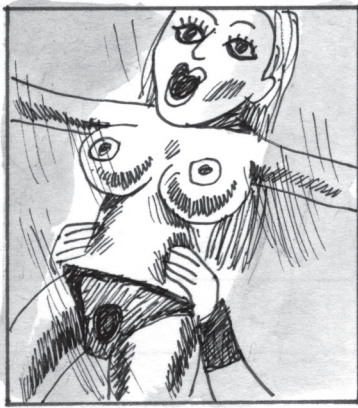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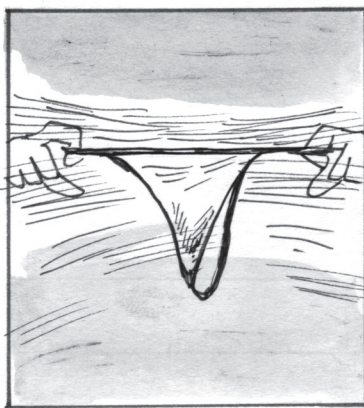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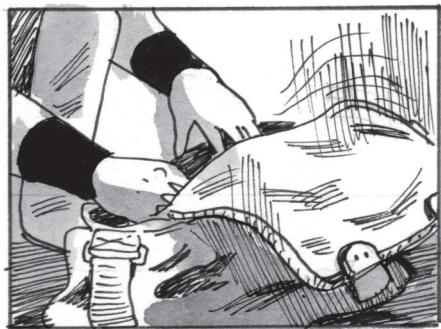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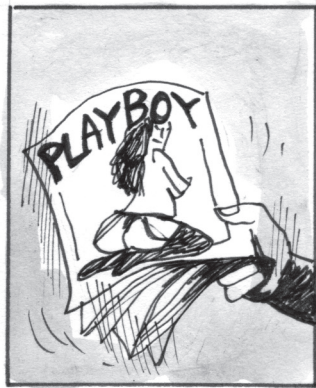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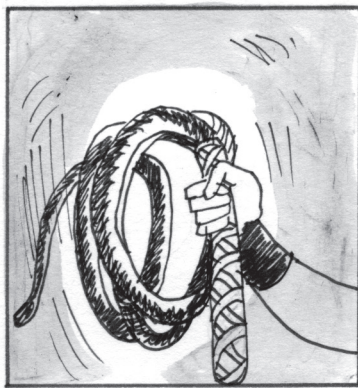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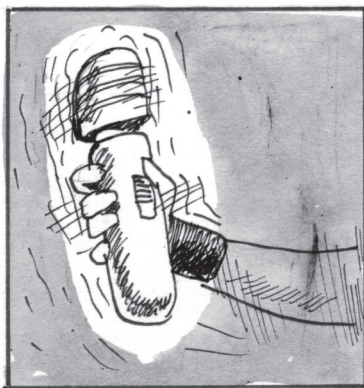














2010 풀 아카이브 프로젝트 #2

A First Reader:

만화가 고영일의 “아카이브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제1 화

발행 김희진(아트 스페이스 풀 Art Space Pool 디렉터/대표)

기획 김진주

저자 김진주, 고영일

발행일 2010.11.10

본 출출판물에 수록된 글과 그림은 발행인과 저자의 서면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전재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56-13 (우 110-803)

[www.altpool.org](http://www.altpool.org)

[altpool@altpool.org](mailto:altpool@altpool.org)